# 이성해 대광위원장, '찾아가는 광역교통정책으로 국민만족도 높일 것'

## - 3일 남양주 별내, 지금, 진건지구 광역교통 개선과제 논의 -

## - 2일에는 광명시흥지구 교통대책 현장 찾아 신속·철저한 관리 강조 -

□ **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**은 2월 3일(금)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남양주시, LH, GH와 함께 **남양주 별내지구·지금지구·진건지구** 광역교통 현황을 점검하고, **광역교통 개선과제를 논의**하였다.

ㅇ 해당 지구 주민들의 **출퇴근 불편** 등을 해소하기 위해 **광역버스 노선 신설 필요성, 시내·마을버스 확충, DRT 도입**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ㅇ 이에, 이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**교통불편 완화**를 위해 대중교통을 **신속히 확충**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, 대광위·남양주시·LH·GH가 **공동 참여**하는 광역교통 개선 TF에서 **신속하게 교통보완대책**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.

□ 한편, 간담회에 하루 앞선 2일(목)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를 방문하여 **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포함한 사업 전반**에 대한 **추진현황**을 점검하고, 지구 현장을 둘러보았다.

ㅇ 이번 점검은 지난해 **11월 28일** 광명시흥 지구지정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**신속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**으로 **교통이 편리한 도시를 조성**하겠다는 **정책적 의지의 일환**에서 마련되었다.

□ 이 위원장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**광명시흥지구 사업추진** 및 **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현황**을 점검한 후, **해당 지구로 이동**하여 **현장 여건** 및 **진행 상황** 등을 살펴보았다.

ㅇ 점검을 마친 이 위원장은 "과거 **광역교통 개선대책** 수립에도 불구하고, **개선대책 세부 사업의 적절성 및 이행 지연** 등으로 많은 **신도시 입주민**이 **피해를 감내**해야 했다"고 지적하면서,

○ ”이러한 문제가 **더 이상 반복**되지 않도록 **대책 수립 단계**부터 **사업시행자·지자체·지역주민·교통전문가** 등의 **긴밀한 소통과 협조**를 거쳐 해당 도시에 필요한 꼭 필요한 사업이 **광역교통 대책으로 마련**되어야 한다“라고 강조하였다.

□ 특히, “**광명시흥지구**는 「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」(‘22.8.16) 및 「청년·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」(‘22.10.26) 발표 이후 지정된 **첫 번째 지구**”임을 언급하면서,

○ “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후에도 **치밀한 사업관리**를 통해 **적기에 개선대책 사업을 완료**하여, **장래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**해 줄 것을 당부”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“광명시흥지구가 **선(先) 교통 후(後) 입주**의 **모범 모델**이 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도 **개선대책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**될 수 있도록 **지원을 아끼지 않겠다**“라고 밝혔다.

2023. 2. 3.

국토교통부 대변인